

[TV]

TV 3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현직 여검사, MBC 월화드라마 '히트'에 쏘스리

“극적 구성 위해 리얼리티 희생”



탈탄트 고현정씨가 강력한 경찰 역할을 맡아 시선을 끌고 있는 MBC 월화 드라마 '히트(HIT)'를 두고 현직 검사가 사실성을 문제 삼아 지적을 냈다.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검찰 내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드라마의 설정은 정의감에 불타는 여성 경찰과 일은 하지 않고 초초화관 생활을 영위하는 '초짜' 검사가 대비돼 수사관 조정이라는 검경의 민감한 문제를 은연 중에 건드리고 있다.

대검찰청 김진숙 검사(사시 32회·여)는 2일 검찰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뉴스프로'에 실은 글에서 "아무리 드라마라든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극적 재미를 가미해야지 극적 구성을 위해 리얼리티를 희생하는 것은 그다지 세련된 기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부공보관 직책을 맡고 있는 김 검사는 여러 공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검찰 관련 극본을 쓰는 작가들에게 검사의 업무 전반과 사건 진행을 자문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 검사가 '리얼리티의 희생'으로 지적한 것 중에 강력특별수사본부에 검찰 쪽에서 며칠 전 일관한 새내기 검사 홀로 투입되는 장면이 있다.

김 검사는 "검사생활 15년째인 필자가 알기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없는 일이다. 강력 사건 수사는 경력 검사도 힘겨워할 정도로 완벽한 증거 수집과 입증은 요구하는 데 초인 검사가 수사 업무를 배우려고 파견됐다는 드라마 경찰 고위 간부의 말은 논랄할 여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강력특별수사본부 전원이 무시한 채 월급을 주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지휘를 거부하는 것도 경찰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극중 고현정씨가 맡고 있는 차수경 경위가 불법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예비검사(하정우 분)의 뺨을 때린 뒤 폭행과 도박을 벌일 하려는 것도 실정법상 불가능하다. 김 검사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도박죄는 그렇지 않다"며 "차수경이 자신의 면책을 위해 검사의 도박 사건을 무마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iving TV advertisement for '하우스 시터' (House Sitter) at 1:30 PM. Includes a photo of a woman and text describing the show's premise.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a 25th anniversary sale.

케이블·위성TV 3월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